


 금융위원회	보 도 자 료		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 금융감독원	보도	2021.12.27. (월) 조간	배포	2021.12.24. (금)	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책 임 자	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장 이 수 영(02-2100-2856)		담 당 자	윤 영 주 사무관 (02-2100-2855)	
	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부국장 김 옥 배(02-3145-8022)			노 영 후 팀 장 (02-3145-8050)	
	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부국장 박 용 호(02-3145-7570)			이 동 규 팀 장 (02-3145-7590)	
	은행연합회 자금시장부장 김 경 민(02-3705-5390)			김 수 연 부부장 (02-3705-5130)	
	예탁결제원 산출공시실 부장 백 상 태(051-519-1732)			배 종 혁 팀장 (051-519-1408)	

제 목 : 리보 산출중단 관련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

◆ ‘22년부터 외화대출·파생거래 등에 기준금리로 활용되어 온 리보(LIBOR)가 **非USD 리보**부터 순차적으로 **산출중단**됩니다.

- 국내 금융회사의 리보연계계약에 대한 **대체금리로의 전환**은 차질없이 진행*되고 있습니다.

* 22.1월 산출중단 리보(GBP, JPY 등) 관련 ☞ 99.6% 전환완료(연내 마무리),
23.6월 산출중단 리보(USD) 관련 ☞ 87.0% 전환완료

◆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**리보산출 중단 일정**에 맞추어 **대체금리**로의 **전환**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**감독·지원**하고,

- 지난 11.25일부터 산출·공시되기 시작한 **원화 무위험지표 금리***도 **본격 활성화**하여 CD금리를 대체하는 등 **글로벌 금융 시장 기조 변화**에 **기민하게 대응**해 나가겠습니다.

* 국채·통안채 익일물 RP거래 금리 (KOFR : The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)

1 추진 배경

- 국제 파생거래 등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던 리보*는 '12년 (호가) 담합 사건*을 계기로 '22년부터 단계적으로 산출이 중단될 예정입니다.

* '12년 6월 리보금리 호가은행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금리를 제시함으로써 리보금리 수준을 왜곡한 것이 영·미 금융당국에 적발

- '22년부터 모든 非USD 리보와 일부 USD 리보(1주일물, 2개월물) 산출이 중단되며, '23.7월부터는 모든 리보 산출이 중단됩니다.

※ 참고 : 리보금리 개요

- 리보[LIBOR(London InterBank Offered Rate)]는 런던 금융시장에 참가하는 주요 은행간 자금거래시 활용되는 호가 기반 산출금리로 총 5개 통화[美달러화(USD), 英파운드화(GBP), 日엔화(JPY), 유럽 유로화(EUR), 스위스 프랑화(CHF)]로 산출되며,
 - 국제 자금시장의 단기 지표금리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외화대출 및 외환 파생상품(CRS 등)의 기초자산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.

- 이에 따라, 미국·영국·일본·유럽 등 주요국들은 자국 통화 리보금리(호가기반)를 대체할 실거래 기반의 무위험지표금리(RFR : Risk-Free Reference Rate)를 개발*·활성화하고 있고,

* SOFR(美, '17.6월), SONIA(英, '17.4월), ESTR(EU, '18.9월), TONA(日, '16.12월), SARON(스위스, '17.10월)

- FSB*는 각국 금융당국에게 소관 금융회사들의 리보기반 계약 체결 중단 및 실거래 기반 대체 금리로의 전환을 권고** 중입니다.

* Financial Stability Board(금융안정위원회)

** 모든 금융기관은 “[~'21말] 신규계약 중단 + ['22~'23.6말] 기존계약 소멸 유도”할 것을 강력권고(strongly urge)하며, 각국은 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 ('21.6.22일, FSB 총회)

2 국내 대응 현황

-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게 차질없이 대응 중입니다.

- ① 우선, '21년 하반기부터 민관 합동 점검 TF를 구성*하여, 산출이 중단되는 리보 기반 금융계약의 전환을 추진해 왔습니다.

* 금융위·금감원·은행연합회·시중 17개 은행 참여, 매월 점검 회의 개최 등

⇒ 그 결과, (i) **22년부터 산출이 중단되는 파운드·유로·엔화 등 리보 관련 계약은 성공적으로 종료 또는 전환이 사실상 완료***되었고,

※ 非USD 등 '22.1월 산출중단 리보 관련 계약 종료 및 전환 현황(12.24일 기준)

대상계약건수(금액)	대응완료건수(금액)	완료율	잔여 건수(금액)
4,332건(30.8조 원)	4,313건(25.8조 원)	99.6%	19건(5.0조 원) ↳ 16건(4.8조원)은 연내 전환완료 예정 ↳ 3건(0.2조원)은 공동대출(신디케이트론) 건으로 차기이자확정일 이전 전환 완료 예정

* 금액은 '21.11월말 기준

(ii) **23년 7월부터 산출이 중단되는 USD 리보 관련 계약은 87%가 전환이 완료***되었습니다.

※ '23.7월 산출 중단 USD 리보 관련 계약 전환 현황('21.11월말 기준)

대상계약건수(금액)	대응완료건수(금액)	완료율	잔여 건수(금액)
43,572건(1,178.4조 원)	37,919건(1,040.0조 원)	87.0%	5,653건(138.4조 원) ↳ 순차적으로 종료·전환 예정

② 또한, 원화 이자율 파생거래(IRS 등, 약 7,000조원 규모)에 널리 쓰이고 있는 호가기반 금리인 CD 금리를 대체하기 위해, 실거래 RP거래 기반 **무위험 지표금리("KOFR")를 개발***하였습니다.

* '21.2월 국채·통안채 익일물 RP거래 기반 금리를 무위험지표금리로 선정, '21.9월 중요지표로 지정

⇒ KOFR은 **11.25일 정식 산출 및 공시**가 시작된 이후 **현재까지 순조롭게 시장에 안착***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

* (i) 원화 단기자금시장의 상황변화(기준금리 변화, 수급상황 등)를 즉각 반영

- ▶ 11.25일 기준금리 인상(+0.25%p) 후 KOFR도 0.298%p 상승(11.24일 0.744% → 11.25일 1.042%)
- ▶ 12.2일 국고여유자금의 MMF 유입에 따른 RP자금공급증가 반영(12.1일 1.012% → 12.2일 0.868%)

(ii) 산업은행·기업은행 등은 '22.1월 KOFR기반 변동금리부채권(FRN) 발행 추진 중

※ KOFR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**매일 오전 11시 산출·공시**하고 있으며, www.kofr.kr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3 향후 대응방향

□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리보금리 산출 중단 및 글로벌 지표금리 변화 추세에 **기민하게 대처**해 나가겠습니다.

① '23.7월 산출 중단되는 **USD 리보 관련 금융 계약**들도 차질없이 전환·종료 되도록 **지속적으로 점검**(분기별) 및 **지원**해나가겠습니다.




② 또한, 한국 무위험지표금리(KOFR)의 성공적인 시장 정착을 위해 **KOFR 시장 활성화**를 **적극 추진**해 나갈 것입니다(22년 금융위 업무계획).

- 앞으로 글로벌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**원화지표금리**는 리보와 유사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**호가 기반의 CD***보다 실거래 기반의 **KOFR**가 **국제표준**이 될 **가능성**이 높습니다.

* 리보와 마찬가지로 호가 기반으로 산출되며, 기초 거래량 감소가 계속(CD 91일물 '19년중 42일, '20년중 29일만 발행)되어 지표금리로서의 대표성·신뢰성 부족 문제가 지속 지적

- 22년 중 (i) **KOFR 선물시장 개설**(한국거래소, 22년 상반기),
(ii) **KOFR 기반 금융상품·거래 확대**,
(iii) KOFR 산정 기반이 되는 **RP시장 제도 개선** 등을 통해,

중장기적으로 KOFR가 CD금리를 대체하는 단기자금시장 지표금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.

 공공누리 공공지적물 자유이용허락	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@korea.kr	 국민권익위원회 콜센터
--	--	---	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